

우리나라 建築 造型美의 現在와 將來



—콘크리트 建築을 中心으로—

姜 奉 辰※

1. 序 言

1962年부터 1966년까지 「經濟 自立基盤의 構築」을 目標로 한 第1次 經濟開發 5個年 計劃의 目標達成에 이어 1967년부터 1971년까지를 「產業 構造를 近代化하고 自立 經濟의 確立을 더욱 促進하기 為한 第2次 5個年 計劃이 推進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 나라는 1次產業인 農業, 林業, 水產業, 牧畜業 等을 비롯하여 2次產業인 鐵業, 電力, 製造業, 建設業 等 基幹產業의 發達과 더불어 交通, 運輸, 通信, 商業, 金融業, 觀光業 등 3次產業에 이르기 까지 우리 歷史上 처음 보는 飛躍的 發展相을 이루어 後進國으로서의 面貌를 점차 脫皮하고 바야흐로 先進國의 隊列에 어깨를 나란히 할 날도 머지 않게 되었다.

특히 國土建設事業의 發達은 高速道路의 建設로써 國土를 1일 生活圈으로 壓縮하였으며 울산포항, 여수등 工業團地에 建設한 巨大한 工場都心地의 하늘로 치솟는 高層Building 면두리의 판자집 대신 세워진 Apartment house 等과 더불어 國土의 面目을 일신 시켰다.

筆者는 이러한 國土建設事業中 社會 間接 資本의 投資로 이루어 진 道路, 港灣, 鐵道, 河川等 土木에 屬하는 것은 論外 키로하고 5.16以後에 세워진 1960年代의 우리나라 建築物에 對하여 現況과 將來를 살펴 보고자 한다.

2. 建築 造型 活動의 史的 背景

19世紀 後半期의 藝術 評論家인 英國의 John Ruskin은 그의 저(著) 「建築의 7등(燈)」 (The Seven Lamps of Architecture)에서 「建築(Architecture)이라 함은 人間에 依해서 세워진 建物을 用途는 무엇이든간에, 그를 보는것이 人間의 精神的인 健康, 힘 및 快樂에 貢獻 할 수 있도록 꾸며 대는 美術이다」 운운 하였고 또 경어(警語)에서 「무릇 건축 이란 인간의 정신에 効果를 미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單純히 人間의 身體에 効用됨을 목적으로 하는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건축(Architecture)을 전물(Building)과 區別하여 오로지 實用目的만을 充足시키는 건조(To build)물을, 전물로 보고 이 전물에 彫刻과 繪畫(색채포함)의 두가지 예술이 가해 지므로써 비로소 건축이라 하는 思考方式이 있다.

이러한 建築觀에 따라 Ruskin은 Renaissance 건축의 저열(低劣)함을 욕하고 Gothic 건축 내지 Romanesque 건축양식의 燦爛함을 讚美하고 그 藝術美에 陶醉 하였던 것이다.

Ruskin의 이와 같은 藝術建築觀은 工藝 미술가 William Morris에 큰 影響을 주었다. Morris는 Ruskin의 影響을 바탕으로 하여 「材料를 合理的으로 適用할것」, 「自然에서 標(範)을 取할

것」、「皮相的인 粧飾이 되지 않고 實在 수용(需用)에 適應할 것」、「機械的 製作을 하지 않고 노작(勞作)을 즐길 것」、「의장가(意匠家)가 제작의 실지에 통효(通曉)할 것」 등을主張하였다.

이러한 Morris의 美術工藝思想은 Europe大陸 전반에 영향을 주었다. 즉 제일 먼저 안리·반·데·베르데(Henry Van de Velde)를 통하여 베르기(Belgium)에 新建築을 이르키고 다음에 France에 들어가 L'art Nouveau가 되고 독일(Deutsch)의 뮌헨(München)에 들어가서 Jugend Totschudeil(청년양식)建築이 되고間接的으로는 Austria(奧地利)의 Sezession식建築, Deutsch의 신전축(Neue Kunst)에도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近代의 新建築運動은 그發端이 Ruskin의 建築評論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건축은 Ruskin의 建築觀과는 显著하게 달라졌다.

즉 建築物에 添加的인 粧飾을 加하는 것에는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고 在來의 건축사적 樣式을 벗어나 材料, 構造를 自然스럽게合理的으로適用하고 用途에 따라 건물로서의 機能을充分히 다하면서 그 自體에 Rhythmical 한 表現이 되도록 하고 건축물의 機能에 맞도록 單純하고 출직한 粧飾을 하게 되었다.

즉 Ruskin과 같이 建物과 粧飾을 따로 따로 보지 않고 材料構造機能 粧飾들을 一元的인 方向으로 取扱하게 되었다.

특히 철근 콘크리트의 발달은 파거의 石造 벽돌조 木造建築等이 구조자체가 建築形態를 상당히 좁은範圍로拘束한 것이 있음에 반하여 新構造方法인 鐵筋콘크리트는 造型의 可能性이 极도로 確大되어過去의 建築樣式에 역대일 必要가 없게 되었다.

鐵筋 콘크리트는 1850年에 France의 Lambot가 Boat(短艇)를 鐵筋 콘크리트로 製造한 바 있었고 그 후 1867年에 France의 庭園吏 Joseph Monier가 화분을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 特許를 얻은 것 등이 철근 콘크리트를 공작물에 사용한 최초의 것이었다.

그후 Concrete自體에 對한研究는 Melan, Neumann 등에 의하여 계속되었으며 1918年 美國인

Abrams가 Concrete強度에 關한 물시멘트비율(Water Cement Ratio)을 발표하고 나서부터 오늘날의 Concrete強度 시방서의 其礎가 이루어지고 그 후 점차로 強度와 彈性의 關係가明白해져서 構造材料로써 Concrete의 信用이 確立되었다.

鐵筋 콘크리트構造의 研究에 따라 構造理論도 發達되고 鐵筋 콘크리트의 特徵인 강절점(剛節點) Rahmen의 研究도 進步되었다.

Rahmen構造는 1923年頃에 完成되었고 一步더 나아가 平面構造 또는 曲面構造가 發明되어 現代建築의 自由自在한 形態를 構成할 수 있게 되었다. 1926年 독일에서 發達된 Zeiss-Dywidag 구조는 이러한 建築構造物의 最初의 것으로 特許를 얻었다.

施工方面에서도 最近에 圓應力式 강현(鋼弦) Concrete(P.S. Concrete) 및 Pre Cast Concrete(P.C)가 發展하여 대 Span의 건축물 또는 陸橋나 高速道路등에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鐵筋콘크리트의 發達은 오늘날 全世界의 모든 建築物의 主構造體로 使用하게 됨에 따라 過去의 地域의 歷史的 建築樣式에拘束됨이 없이 世界共通의 建築形態를 이루게 되었다.

3. 우리나라의 建築造型活動

前記 한바와 같이 鐵筋콘크리트의 新構造方法의 發達은 우리 나라에서도 모든 건축물에 適用되었다.

특히 6.25動亂으로 因하여 破壞된 住宅과 產業施設等의 復舊와 新設에 있어서는 在來의 木造대신 대부분 벽돌이나 鐵筋 콘크리트와 같은 耐火的이고 耐久의 構造를 使用하게 되었다.

6.25以後부터 現在까지 우리나라의 建築發展狀況을 대충 살펴보면 年代에 따라 심한 차이를 發見한다. 즉

1951年 9月 29日 臨時首都이던 釜山으로 부터 서울로 還都한 후 1953年 7月 28日 休戰協定이 成立될 때까지의 期間은 建築空白期로서 우선破壞된 住宅을 시멘트 벽돌이나 콘크리트 블록과 木

材等을 使用하여 임시적으로 應急復舊하는 程度에 不過하였다.

1954年부터 1959년지의 期間은 前後復舊期로서 破壞된 公共施設과 產業施設의 복구에着手하고 또 深刻한 住宅難을 解決코자 I.C.A. 주택과 같은 벽돌과 목재의 混合構造인 簡易住宅이 大量으로 生産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期間中 注目할바는 大學生의 徵集延期惠澤에 따른 私立大學의 膨脹으로 現代式 鐵筋 콘크리트의 고층교사(高層校舍)가 가장 많이 建築되었다는 점이다.

1960年 4月 19日 學生義舉後부터 1961年 5月 16日 革命까지의 期間은 建築停頓期로서 일반 公共建築과 產業用建築은 완전히 停頓狀態에 빠져 버리고 治安의 혼란을 틈타서 廈斗리에는 無許可 판자집과 불법 건축물이 멋대로 慢行되었다.

5.16後 政治經濟가 차츰 安定되고 1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實施하여 所期의 目標를 達成한 바 있는 1962年부터 1966年까지의 期間은 우리나라 現代建築의 勃興期로서 官公署廳舍, 店舖 Office Building 現代住宅, 商街住宅, 工場, 劇場, 觀光 Hotel 綜合病院, 學校建築 等이 많이 建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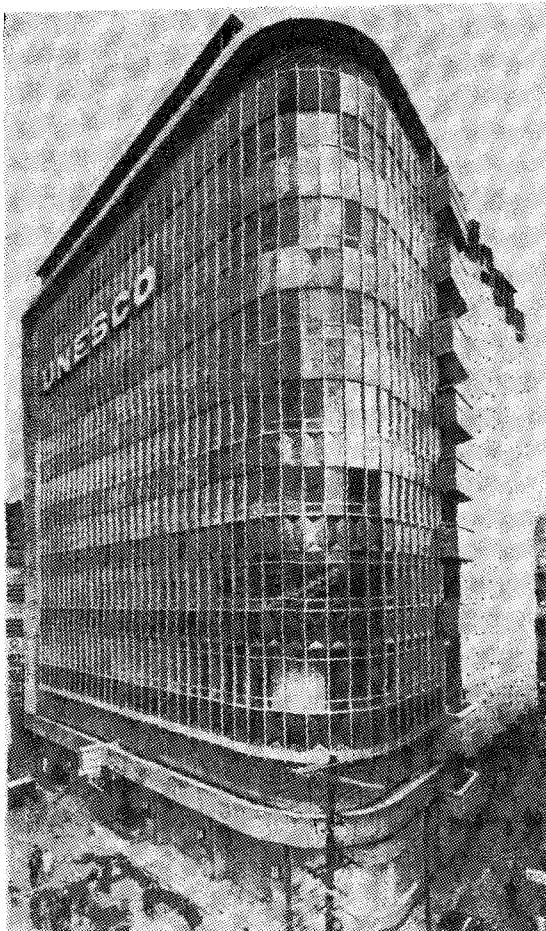
특히 이때부터 從來의 임시적이고 조제란조(粗製亂造)적인 建築手法을 止揚하고 새로운 構造와 새로운 材料를 使用하여 비로소 永久의이고 精巧한 工法과 造型的인 藝術美를 表現한 建築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967年부터 1971年까지의 2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推進中에 있는 現在는 現代建築의 完熟期라고 할 수 있다.

政府機關의 綜合廳舍, 一般產業用建築, 特殊化學工場, 超高層 Office Building, 商街아파트, 交通, 觀光, 運輸用建築, 超高層 Hotel 銀行建築研究所建築, 기념건축 등 실로 多採롭고 紹欄한 건축물이 많이 건축되었다. 또 都市 再開發事業에 따라 廈斗리의 판자촌을 追放하고 그 자리에 現代的인 Apartment House가 세워져 都市의 形態를近代化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固有한 傳統美를 길이 保存하고 民族精神을 昂揚하기 위한 記念建築物이 많이 建築되었다. 在來의 木造를 鐵筋콘크리트

로 代替하여 火災와 腐蝕을 막고 永久히 保存도록 하려는 것이다.



유네스코會館 全景

4. 우리나라 建築造型의 유형(類型) 과 實例

前述한바와 같아 우리나라 1960年代에 접어들면서부터 유사이래 처음 보는 各樣各色의 여러가지 건축물이 많이 建造되었다.

現代建築은 建築史의으로 아직 일정한 양식으로 둑어서 論議할 段階는 아니나 어여한 類型으로 分類할수는 있을것이다. 즉 구조형태, 재료, 施工方法과 치례방법 등 如何에 따라 建築形態가 제각기 달라 지기 때문이다. 1960年代에 건조된 우리나라의 建築物에 對하여 類型別로 나누어 보면 大略 다음과 같다.

먼저 構造形態上으로 볼때 構조식(Rib Sty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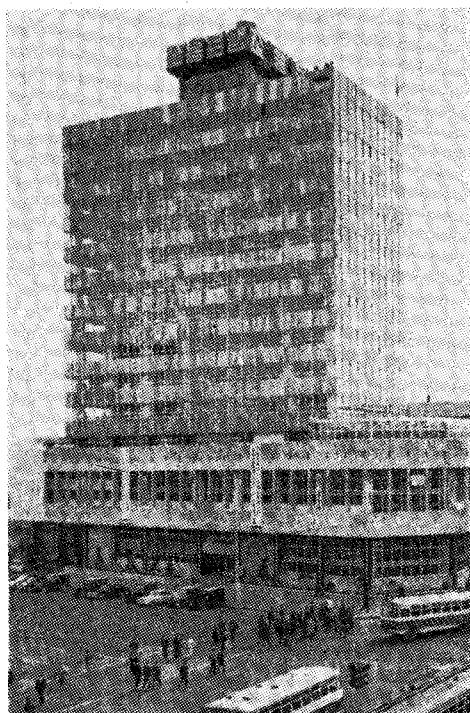
차양식(Louver Style), 광창식(Glass Belt Style), 정자식(Grillage Style), 로대식(Balcony Style), 조형식(Formative Style), 곡면식(Shell Style), 고전식(Classic Style), 혼합식(Mixture Style)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에 材料上으로 볼 때는 木材는 이미 構造體로는 使用하지 않게 되었고 窓戶나 내부 치장재 程度로 밖에 사용하지 않는 實情이다.

구조체의 재료로서 역시 鐵筋콘크리트가 壓到的으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外壁과 內壁에는 벽돌과 콘크리트블록 또는 시멘트벽돌 등을 대부분 사용하였다.

특히 主體構造에 外國產 大型 鐵骨材를 사용한例도 2~3個 있으나 特殊한例外로 생각된다.

工法上으로는 역시 鐵筋콘크리트의 일체식공법이 壓到의이며 住宅등 小規模의 건축물에는 조적식공법을 사용하였으며 特殊한 部門에 關하여 P.S 또는 P.C 콘크리트 工法을 混用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치례방법에 있어서는 콘크리트의 自然美를 吟味하기 위한 Exposed Concrete 方法



朝興銀行 本店 全景

이 가장 많이 使用되었으며 다음에는 치례 벽돌花崗石, 타이루, 알미늄판붙이기 等으로 被覆하는 方式과 몰탈 또는 Concrete 면에 수성페인트 또는 단청으로 채색하는 方法 및 여러 가지 方法을 混合使用하는 方法 등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하 具體的인 例를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1) 굴조식(Rib style)

典型的인 Rahmen 構造形式으로서 기둥과 벽보를 그대로 露出시키고 그 사이에 窓을 끼우는 方式이다. 外觀形態는 簡潔하고 매우 堅固하게 보인다.

實例 : 중앙 매스콤 센타

(裴基瀝作 · 1965. 11. 준공 · 타이루붙임)

삼성 BLDG.

(李光魯作 · 1966. 7. 준공 · //)

타워 Hotel (金壽根作 · 1964. 10. 준공 · Exposed Con.) 서울 시의 전화국

(羅相振作 · 1966. 11. 준공 · //)

해남 BLDG.

(吳雄錫作 · 1967. 5. 준공 · //)

(2) 차양식(Louver style)

Louver는 垂直式과 水平式의 두가지로서 建物의 遮光效果와 垂直水平의 律動美(Rhythmical Beauty)를 強調한다.

實例 : 중소기업 은행 본점

(嚴德紋作 · 1968. 11. 준공 Exposed Con.)

YWCA 회관

(車景淳作 · 1968. 4. 준공 · //)

유네스코 회관

(裴基瀝作 · 1966. 12. 준공 · 알미늄카빈월)

(3) 광창식(Glass Belt style)

Slab를 기둥밖으로 1~2m가량 Cantilever식으로 내밀고 중두리벽을 벽돌이나 Concrete로 築造하고 그위에 水平으로 壁面全體에 연속창을 내는 형식으로서 採光이 좋고 육중한 기둥이 露出되지 않아서 輕快하게 보인다.

實例 : 대한 체육회관

(金台植作 · 1966. 6. 준공 · Exposed Con.)

상업은행 본점

(洪淳五作·1965. 12. 준공·타이루붙임)

조홍은행 본점

(鄭寅國·金重業(合作·1966. 12. 준공·알)
(李天承·朴春鳴(미남판붙임))

(4) 정자식(Grillage style)

外壁에 補助기둥을 使用하여 水平 垂直의 一定한 間隔으로 그릴을 짜고 그사이에 窓을 내는 形式으로서 外壁全體가 一종의 Mosaic 模樣으로 보이고 아름다운 現代美를 풍진다.

實例 : K. A. L. BLDG

(趙重植作·1969. 9. 준공·타이루붙임)

서울법원 청사

(金英植作·1966. 12. 준공·Exposed Con.)

동대문구 청사

(康在洪作·1968. 8. 준공. //)

낙원 상가 아파트



K.A.L. 빌딩 전경

(金萬盛作·1969. 4. 준공·타이루붙임)

(5) 로대식(Balcony style)

Slab 를 기둥 밖으로 1~1.5m 가량 내밀고 중 두리벽을 築造하거나 란간을 附設한 方式으로서 休息空間으로 利用하고 直射光線을 避할수 있는 效果와 重疊되는 밸코니는 律動感을 느끼게 한다.

實例 : 세운 상가 아파트

(金壽根作·1967. 12. 준공·Exposed Con.)

(6) 조형식(Formative style)

外壁面의 단조함을 求하기 위해서 벽면에 彫刻을 한다든가 장식물(Decoration)을 附設하는 경우 또는 建物 全體가 어여한 造型美術의 인 形態로 이루어지는 藝術的인 建築物이다.

實例 : 문화방송 BLDG.

(金壽根作·1969. 8. 준공·Exposed Con.)

에밀렌집

(趙子庸作·1968. 4. 준공. //)

자유센타

(金壽根作·1964. 10. 준공. //)

(7) 곡면식(Shell style)

지붕을 四面으로 構成하는 方式으로서 大規模 建築物의 空間을 最大限으로 利用하는 效果와 아름다운 曲線美를 나타낸다.

實例 : 남산야외 음악당

(安秉義作·1963. 8. 준공·Exposed Con.)

광주 실내체육관

(姜奉辰作·1965. 10. 준공. //)

연세대학교 강당

(宋鍾奭作·未詳 //)

장충 체육관

(金正秀作·//)

불란서 대사관

(金重業作·//)

(8) 고전식(Classic style)

우리 나라의 固有한 傳統美를 지닌 過去의 木造建物을 樣式은 古典式 그대로하고 構造

를 鐵筋콘크리트로 하여 韓國美를 保存 繼承케 하려는 方式이다.

實例：화랑대

(姜奉辰作·1966. 9. 준공·Exposed, 단청)
현충사 본전, 정문

(// 1967. 4. 준공. //)
광화문

(// 1968. 12. 준공. //)
국립묘지 용사문

(// 1969. 6. 준공. //)

(9) 혼합식(Mixture style)

外壁은 벽돌로 쌓고 바닥 또는 지붕을 鐵筋콘크리트 스크래브로 建造하는 方式으로서 小規模의 建築物 또는 一般 住宅은 大部分 一方式으로 建築되었다. 外部는 치장벽돌, 태라캇다. 또는 花崗石 블록이기 등 여러가지로 치례하고 스크래브는 대개 깊게 내밀어 付壁이나 欄干을 들리고 베란다.(Verandah)를 만든다.

實例：이씨저 (李承雨作·1967. 4. 준공)

김씨저 (金萬盛作·1968. 12. 준공)



MBC 全景

이씨저 (金重業作·1969. 2. 준공)
J 씨저 (安瑛培作·1964. 11. 준공)
이씨저 (李喜泰作·1964. 12. 준공)

5. 將來의 展望

우리나라는 地震의 염려가 比較的 적을뿐 아니라 地盤狀態도 良好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더 육 대규모화 하고 고층화 할것이다.

그러나 現在의 鐵筋콘크리트 造는 經濟性으로나 構造上으로 보아 30~40층 내외가 限界點이 아닐가 생각된다.

그 以가의 경우 이미 일부에서도 使用하고 있는 大型 鐵骨構造로 轉換되지 않은수 없을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鐵筋콘크리트는 極히 制限된 部分, 이를테면 地下層이나 基礎部門에 使用할程度로 縮小될 것이다.

바닥에는 Peck plate를 깔기 때문에 極小量의 콘크리트로써 充分 할 것이며 外壁도 骨造壁體에 機械生產으로 된 材料를 組立式으로 꾸며 질 것이므로 高階建築物에 콘크리트를 使用하는 것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5. 結 語

우리는 過去 不過 10年 동안에 참으로 놀라울 만큼 많은 建築物을 製作 해냈다. 그러나 이 많은 건축물이 果然 모두가 後世에 전해 줄만한 훌륭한 作品들이냐 하고 물을때는 確實한 답변을 누구나 할수 없을 것이며 '오로지 後世의 建築史家들이 判斷하여 記錄할 것이다.'

Ruskin은 國民的 建築에 關해서는 다음 두 가지의 義務가 있다고 하였다.

「첫째로 現時의 建築을 歷史的인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두째로 過去時代의 建築을 遺產中에서 가장 貴重한 것으로서 保存하지 않으면 안된다」 운운이 말을 우리는 首肯하지 않을수 없다.

建築도 哲學이 있어야 한다.

참된 것(True), 착한 것(Good), 아름다운 것(Beautiful), 이 三大要素는 永遠히 不變할 真理이다.

이 三要素를 지닌것만이 二十世紀의 現代建築樣式으로 後世에 남을 것이며 이 三要素를 가추지 못한것은 한때의 流行으로서 머지않아 사라져 갈 것이다.